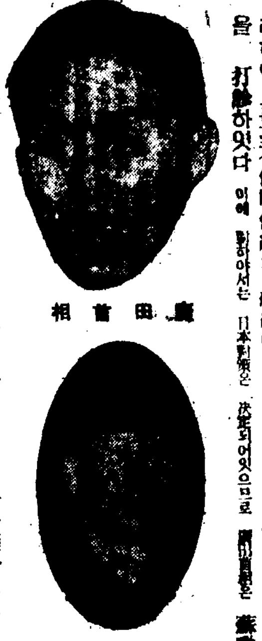
東亞日報
夕刊
六月二十七日(土)

日蘇不侵略條約

本國政府訓令으로 蘇大使再提議

情勢緊張한此際無意味라고 廣田首相斷然一蹴



廣田首相

유레니에브大使

蘇滿國境處理委員會開催

波蘭、南米諸國 制裁撤回通告

廿六日이든議長에서

緊張裡에 聯盟理事會開會

팔레스티나市街

激昂한亞剌比亞人 聖地進軍을企圖

種族鬪爭熾烈한아만會長大會

英人、猶太人驅逐을決議

英政府當局談

아브드라殿下 局地的解決을强調

시리아에集結 佛軍南下에防備次

딴치히自由市 獨立運動開始

흘서氏獨立宣言發表決定

宮崎某等의 軍規違反公判 七月二日부터開廷

冀察中央軍의兵變

桑港要塞强化力說 시몬스少將

廣西軍貴州進擊 都匀을占領

獨中軍需品 借款密約成立

獨타將軍、蔣氏와會見

密約內容

理事會不參加 伊政府正式通告

日本將校侮辱 豐台事件惡化

宋哲元氏에게嚴重抗議

事件內容

檢擧된日소氏 犯罪事實否定

青島塘沽에 驅逐艦急派

中國稅關糾彈決議 青島日本人激昂

橫說竪說

消息

明治コナミルク

母乳代用 加糖粉乳

幾十萬의산애育例에依하야實證되는此品質!

我が子の一年

無代贈呈

明治コナミルク(赤函又는小函)의罐劵(罐中에들어있는薄紙片)의裏面에어기의住所、氏名、生年月日을記入하야 東京市京橋區京橋二ノ八 明治製菓コナミルク係로郵送하시면 生後一個年未滿의어기에게限하고 右育兒讀本을에기의日記를보내드립니다

締切・六月三十日

傳染病

「夏から秋への衛生」冊子 無代贈呈

마음노치못합니다 어쩌이상한듯하거든곳 アドース錠을

지금이傳染病의流行期입니다 身體가어찌困하고食慾이없고배가끓고 泄瀉나고便이粘液質이오或時血液이섞이며頭痛 惡寒 發熱等이있을境遇는一刻도마음노치못합니다 그무시운疫痢와赤痢 虎列剌 腸窒扶斯 는以上과같은症狀으로始作됩니다。

이러한境遇에는내버려두지말고 于先アドース錠을服用하십시오 アドース錠만먹으면腸內에滯在한有害한毒素와 나쁜黴菌을藥이全部吸收해서無害케하야體外로排出하야體內의掃除를해주는故로퍽安全하게治療가됩니다

元體夏節은黴菌의繁殖이旺盛해서飲食物이腐敗하기쉽고또寢冷으로下痢나腹痛을일으키기쉬운즉豫防과治療를爲하야アドース錠을勸합니다

適應症

疫痢 赤痢 虎列剌 腸窒扶斯 急性腸カタル 胃酸過多症 慢性便秘 一般下痢 食餌中毒 藥物中毒 自家中毒症

アドース錠

아 도 - 스 정

藤澤友吉商店

五個年繼續工事로 清溪川에 暗渠實現

세가지案으로總督府에申請

工費豫算五百萬圓

다년 문제되든 청계천(淸溪川) 개수공사는 드디어 착수하게 되엇다. 경성부에서는 청계천 개수공사에 대한 구체안을 꾸며가지고 방금 총독부에 신청중이라는데 그 구체안의 내용은

一、광화문통(光化門通)에서 동대문(東大門)까지의 청계천에 암거(暗渠)를 가설하야 도로를 만들고 …

二、광희문(光熙門)밖에서 …

鴨綠江水力電

候補地로五處決定

◇位置、發電量、供給範圍等을 朝鮮、滿洲서合同調査

압록강(鴨綠江) 수력이용개발계획은 …

一、만주국 … 어디서 기전하가

一、발전지점의 후보지 결정

蔚山赤色讀書會 豫審終結、公判에

被告五名有罪決定

【부산】 작년三월에 울산에서 …

◎綠陰에 실린 江風◎

普天教最後悲鳴

二百五十幹部 連署로陳情

警察態度더욱强硬

一切集會禁止·寄附行爲不許

自轉車專門 窃盗二名逮捕

滿浦線工事中心의 鐵道疑獄豫審決定

鐵道局技術員等十三名有罪로 咸興法院公判에廻附

土幕百餘戶 强制撤去令

【부산】 부산부 …

白骨詐欺事件 瀆職罪로起訴

一名釋放、二名公判에廻附

受賄事實證據確然

廿歲의處女가 그네뛰다落死

木浦大里島近海서 米、商船坐礁

豪雨때문에救助難

뻐스、自動車衝突 애꾸진老翁負傷

咸北赤農事件 十名不服控訴

中央新鐵道 義城의電線實測

天氣豫報

運動競技

東京留學生 蹴球陣容

◇一行이陣容

女子庭球 團體戰經過

【第一回戰】

○梨花　貞信×

女子卓球리그

【第二回戰】

×淑明　一高女○

×進明　女高○

×海州　一高女○

×梨花　同德○

女高籠球敗

女子排球經過

【第一回戰】

一高女　女高普

東亞自動車講習所
所長 元京畿道運轉者試驗主任警部 溝見良 經營

自作自給하는織組機械와製系機械
東洋染織機料部 京城府長沙町八七番地

東亞日報購讀請求所

金銀地金分析賣買 京城 合名會社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京城婦人病院

不老長壽 强精固本 更少年兒
百補丸 一劑十圓
京城堅志町 平和堂

山葉ピアノ
日本樂器會社出張所

우리옷감 태극성광목

眼鏡修繕은무어시든지함니다朝鮮서처음인만큼一次下命하시기바람니다。
東一眼鏡院

빅타-레코-드 七月新譜
빅타-大衆盤

一回効散
頭痛 齒痛 頭痛 神經痛

門專科喉咽鼻耳

中央體育研究所

上鳳里 … 工場

昭和十一年六月二十三日付 平壤特輯第六面에揭載된中城漢藥局本舖의 漢字는韓字의誤植임을茲以訂正함

同五面에揭載된 昌信堂藥房本舖의 昌信은昌信의誤植임을茲以訂正함

公告

어린이日曜

六月廿一日이하지 일년중에제일 해가긴날입니다

그까닭을아십니까

이달 二十一일(日曜)은 하지(夏至)입니다. [illegible]

[illegible]

少年少女현상웅변대회

基督敎勉勵會主催로

[illegible]

몃사람이나잇어보입니까?

우선 그림에 사람이 몃이나잇는지 세어보십시오. 둘과 할수없이 나타낫이라든가 그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숨어잇어서 [illegible] 다 헤여보십시오. 더구나 칼, 손, 발[illegible] 잘조사하십시오. 모두十二명이나됩니다. 정말찾기가 [illegible]

섬

嚴達鎬

바다건너 저쪽은
　어딘가하고
발도듬을 하고서
　보앗드니만
갈매기 물이서
　나르는저쪽
섬하나이 가마득
　보잇읍니다

그섬에는 누구가
　사는가하고
어보하고 부르니
　대답은없고
대낮에 조을던
　힌돗하나이
그섬에서 떠나서
　이리옵니다

(一九三六、六、一九)

라디오 JODK

六月二十七日(土)

[illegible]

六月二十八日(日)

[illegible]

六月二十九日(月)

[illegible]

라디오 極東無線商會 [illegible]

白蓮流轉記 (104)

尹白南作　李靑田畵

十一、풍파(風波) 二十三

「배 멈춰라 그배 멈춰라」하고 소리를 질으며 중군영 배는 계하수의배와 나란이 병선하며 쇠갈쿠가 붙어잇는 사ㅅ대로 계하수의 배ㅅ전을 찍어 잡아다린다.

배는 서로 붙엇다.

「에 여바라 백련아」

하고 중군영 군교 정덕기(鄭德基)라는 우락부락하게생긴 위인이 발을 건넌다.

계하수의 배 에서는 웬 계표인지 처음부터 아모말이 없이 정거니 자키니 술만마시고 [illegible]하고 있다.

백련이 역시 장고치던손을 멈추지않고 노래는 여전히 드러간다.

「저런 죽일년 보아 야 이년 안」

「이년이라니」

백련은 그제야 손을 멈추고 이편을 노려본다.

「그럼 너같은년더러 이년이라지 뭐라구부르라. 누가와서던지 백련아하구 부르면 선뜻 대답을 할것이지 기생명색으로 잇는년이 방자스럽게 이년아 해야만 사람두 뵈지안는」

「미친년눈에 점잖은 양반네업금이 어찌뵈것오」

「예 이년만써바라」

「이년저년 당신네 씨종이란말요 말버릇괴악하다 점잖은분네간」

「너 언제 이때 노름 받어왓는」

「노름받은일업소」

「그럼은요 기생이래야 노름받지안소 기생백련이는 오늘아츰부터 기안에서 이름을 뺏오. 미안이우마는 당신네 우드머리가는이런데 그런말을 전허구려. 백련이는 기생노릇을 그만두고 재기영감계하수 허구 선유를 허구 잇다구」

권덕기의 이행동임ㅅ시 별문이 타 막히엇다. 남의 계집이 됏다는말에대해서 무에라고 할말이 없엇다.

그러나 그렇이 [illegible] 것으로 정작하는 중군영에는 다시 볼분이 어려웟다.

「그년허구 길게 시비는해무엇하느 [illegible]」

해 아 이자식들아 내가 기생이라헐찌라두 너이를 데가리되는이가 조화하는계집이면 너외업에겐 상전이 아니냐. 상전더러 이년저년 어디보자. 너이들이견디나 내가견디나」

이때에 강상에 떠잇는 크고작은 여러배들은 앗가부터의 이두배의 광경을 보고 무슨 시비가이러남것을 짐작하고 무리를 중심으로 모여들어다.

「세상에 어런눈 먼 여석들이 나라녹을 먹게되니 한심치않오 그래내외가 선유하는배에 처들어와서 백주에 남의계집을 빼서간다」

백련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애장을 친다.

「아니 대관절 이놈들이 남의배에 와서」

하고 이제껏침묵을 직히고잇던이편배의 젊은이들이 불끈하고 이러섯다.

하나는 배ㅅ전에 백혀잇는 쇠갈귀사ㅅ대를 빼던지고 사기술ㅅ병을 들어 배ㅅ전에 올라앉인 전덕기의 머리를 향하야 후려갈것다.

횡포무쌍한 그네들의행동에 공분이 터진것이엇다.

전은 머리를 몰리여 언어맞지는 아니햇지마는 양편감정은 이것으로써 폭발되고말엇다.

주위에서 구경하던 유람에서는 「그놈을 쳐죽여라」하는 [illegible]

허우그냥 드리쳐버리지 오늘 아츰까지 기생질 허든년이 별안간 남의계집이란 무슨소리야」

여럿은 [illegible] 계하수배를 뒤집어엎어놀뜻이 [illegible]하엿다.

「계집년 하나때문에 여러분이 [illegible] 기생 백련이가 어지간이장사 [illegible]로군. 그런부하를 데리고잇는 중군이니까 기생집문ㅅ간에 파수를 다 세워주는구려 하하하하」

백련은 [illegible] 술잔을 들어마신다.

「저런 죽일년 남의계집이니구 대부인마님이라두 그냥둘수없다 이리좀나오너라」

「아니 저자식들이 입이 빼뚜러젓나 누굴보고 나오너라마라」

第一劇場

(電話光一七五五番)

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但 二回興行中에限하야無說明)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리차드、탈마지、마리아、알바 主演

西部活劇 鐵拳兄弟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로렌스、티베트主演

메추로포리탄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畵

天才少女、[illegible]

나는우리새룡거리

◇日活超特作映畵

綠の地平線

◇松竹蒲田現代劇部總動員作品

小津監督 出來ごころ(出來心)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illegible]

본사京販

우리옷감 태극성광목

時代난變遷하엿다

世界的强壯劑 네오톤 토닉

【適應症】[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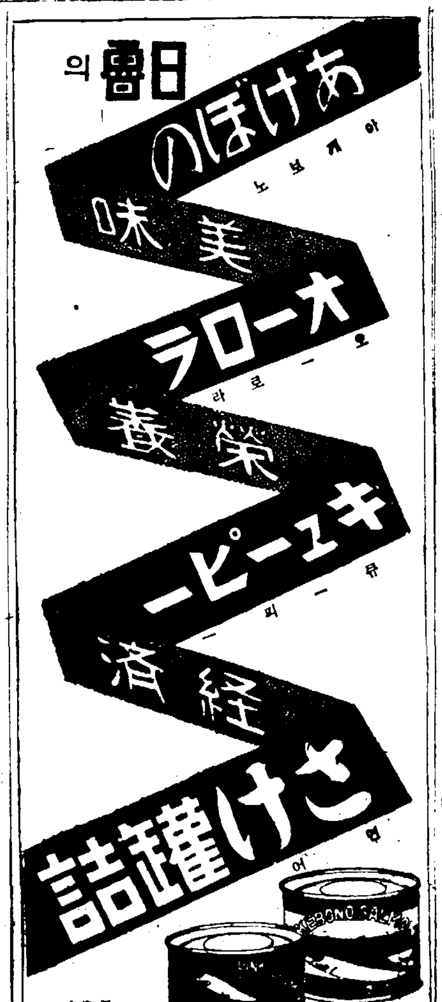
【注意】[illegible]

【無代進呈】[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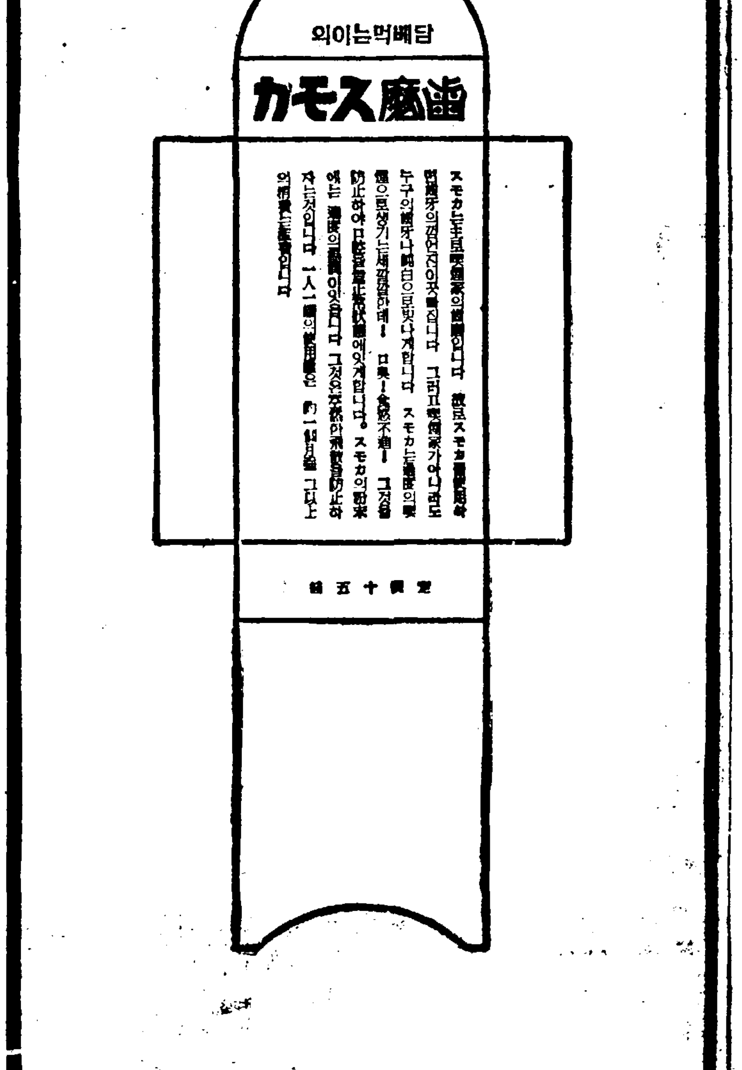
製造元米國아볼드製藥會社

東洋輸入總發賣元 柳韓洋行

京城·上海·大連



●感嘆!! 感嘆!! 정말頭痛에씩조흔 ノーシン 이다●



米國의增稅案
—今議會의收穫—

農民系資本으로 肥料會社設立
需給의圓滑目標로 具體案研究

朝鮮人移民의統制할 滿鮮拓殖會社法公布

各銀假決算 業績好轉!
◇…配當은据置

土地投機의 警戒警報

米運賃問題 個別的으로協議
各船會社代表入京

三者가協調!

土曜放評 買方退却?
一般群衆이何가關心事

◇

그러나 여기서 가장 注意할 것은 …

甲板積米에 保險은不認
七月一日부터實施

産金業課稅 朝鮮은時期尙早

白米뽀어코三 穀聯에서協議

今日의市況
六月廿七日

株式 (單位十錢)	正米 (三等單位)	
期米 (單位錢)	商品 (單位十錢)	

時勢와市況
株式 如韓히 低迷

朝取短期前場步調

月初一戰?

當限은平調

東新의事業株
東京地場強弱觀

財◎海◎餘◎波

期米 下向
前場底强

大阪人絹現物

東京國債市場

大阪國債市場

實物賣買價前場

內外金銀時勢
六月廿七日

海外金銀 (廿六日)

東京金銀 (前電)

京城金銀

米豆餘塵

今後動向注目
저의大賣玉

後場漸落

一般群衆은
低弛할수록買募

○桑野取引所

正米 雨模樣 低落
京城低落
仁川反落

各限保合

群山氣崩

大邱軟弱

釜山下支

木浦低落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海外經濟

株式

正米

經濟

株 米 金益證券 光皿 米穀金益商店

朝鮮農會御用品
指定販賣店
滿洲肥料商會
京城府南大門通五ノ七四(ソウルビル)
電話本局五七一〇番
滿鐵硫安
滿化硫安
效驗成分은優秀 價格은第一低廉

株式期米
福